

파생어, 합성어 개념

필수 개념 1 형태소

형태소는 일정한 뜻(의미)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서, 더 나누면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뉜다. 또한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자립 형태소: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의존 형태소: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

형식 형태소: 접사, 조사, 어미와 같이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문항에서 개념 찾기

▶ 11. <보기> 선생님: 형태소는 일정한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뜻합니다.

- 2014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필수 개념 2 합성어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이때 ‘밤낮, 새해, 본받다, 뛰어가다’와 같이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문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사적 합성어, ‘덮밥, 높푸르다’와 같이 단어 형성에서만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높푸르다’와 같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하는 방식은 문장 구성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단어 형성에서만 나타난다.

문항에서 개념 찾기

▶ 12. 단어 형성법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는 탐구 과제를 수행해 보았다.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탐구 과정 2: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인가?

- 2013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교과서 개념 한눈에 보기 1

1. 형태소와 단어

- 형태소: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의미 단위

- 단어: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단, 조사는 자립할 수 없으나 단어로 봄.

2. 어근과 접사

- 어근: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 접사: 어근에 붙어 뜻을 제한하는 요소

3. 단어의 형성

-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 복합어: 둘 이상의 어근, 혹은 어근과 파생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

- 합성어: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복합어로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 파생어: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필수 개념 3 파생어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군침, 새파랗다’처럼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도 있고, ‘구경꾼, 지우개’처럼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도 있다.

접두사는 어근에 일정한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을 한다. ‘헛기침’의 ‘헛-’이 그러한 예이다. 접미사는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어근에 일정한 의미를 덧붙이기도 하고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위’에 접미사 ‘-질’이 붙어서 어근과 파생어의 의미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 ‘맑다’의 어근 ‘맑-’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것과 같이 어근에 일정한 의미를 덧붙임과 함께 문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문항에서 개념 찾기

▶ 13. <보기 1>은 접미사 ‘-시키다’와 관련하여 국어사전을 찾아본 결과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시키다’가 바르게 사용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01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B형

03 <보기>는 문법 수업 상황의 일부이다. ㉠을 이용하여 파생어의 형성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오늘은 파생어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형성됩니다. 예를 들면,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인 '가난' 과 '그것을 특성으로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사 '-뱅이'가 결합하여 '가난뱅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접사들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꾼: 「1」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 하는 접사. 「2」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쟁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

- ①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집장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겠군.
- ②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살림꾼'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겠군.
- ③ 멋있거나 멋을 잘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멋쟁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겠군.
- ④ 용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용기장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겠군.
- ⑤ 잔소리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잔소리꾼'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겠군.

04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語根)'이라고 하며, 둘 이상의 어근끼리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을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구분된다. 통사적 합성어는 '명사 + 명사', '관형사 +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용언의 연결형 + 용언'과 같이 우리말의 일반적 어순이나 단어 배열에 따른 합성어를 말한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언의 어간 + 명사', '용언의 어간 + 용언', '부사 + 명사'와 같이 우리말의 일반적 어순이나 단어 배열에 어긋난 방식으로 결합된 합성어를 말한다.

<보기 2>

- ㉠ 오늘도 산들바람이 부는구나.
- ㉡ 봄이 오면 늘 고향의 산나물이 생각난다.
- ㉢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교실에 들어가는 재영이의 모습이 참 밝다.
- ㉤ 식당에서 시끄럽게 오가는 아이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 ① ㉠의 '산들바람'은 부사 '산들'과 명사 '바람'이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군.
- ② ㉡의 '산나물'은 명사인 '산'과 명사인 '나물'이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군.
- ③ ㉢의 '새해'는 관형사 '새'와 명사 '해'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군.
- ④ ㉣의 '들어가다'는 '들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에 '가다'라는 용언이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군.
- ⑤ ㉤의 '오가다'는 '오-'라는 용언의 어간에 '가다'라는 용언이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군.

12 <보기>를 참고할 때, ㉠~㉣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의미 관계는 단어들 사이뿐 아니라 합성어나 파생어와 같은 단어 내에서도 나타난다. ‘오가다’를 구성하는 ‘오다’와 ‘가다’가 ㉠반의 관계를 이루는 반면, ‘곧바로’를 구성하는 ‘곧’과 ‘바로’는 ㉡유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국화꽃’을 이루는 ‘국화’와 ‘꽃’은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다.

- ① ㉠: 위아래
- ② ㉠: 여닫다
- ③ ㉡: 굽주리다
- ④ ㉢: 이슬비
- ⑤ ㉢: 봄철

03 단어의 구조 파악 ①

① 확인 접미사 '- 장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접사는 '-쟁이'이므로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은 '고집쟁이'가 적절하다.

② 확인 접미사 '- 끈'

'살림'이라는 어근 뒤에 '-끈'이라는 접사가 결합하여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살림꾼'이라는 파생어가 형성되었다.

③ 확인 접미사 '-쟁이'

'멋'이라는 어근 뒤에 '-쟁이'라는 접사가 결합하여 멋을 잘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멋쟁이'라는 파생어가 형성되었다.

④ 확인 접미사 '-장이'

'옹기'라는 어근 뒤에 '-장이'라는 접사가 결합하여 옹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옹기장이'라는 파생어가 형성되었다.

⑤ 확인 접미사 '- 끈'

'잔소리'라는 어근 뒤에 '- 끈'이라는 접사가 결합하여 잔소리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잔소리꾼'이라는 파생어가 형성되었다.

04 단어의 구조 파악 ④

④ 확인 용언의 관형사형에 용언이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

'들어간다'는 '들어'라는 용언의 연결형에 '가다'라는 용언이 결합된 것으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용언의 관형사형은 관형사처럼 체언을 꾸미는 용언의 활용형이다.

① 확인 부사와 명사가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

㉠의 '산들바람'은 '산들'이라는 부사와 '바람'이라는 명사가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확인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

㉡의 '산나물'은 '산'이라는 명사와 '나물'이라는 명사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확인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

㉢의 '새해'는 '새'라는 관형사와 '해'라는 명사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확인 용언의 어간에 용언이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

㉣의 '오가다'는 '오-'라는 용언의 어간에 '가다'라는 용언이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12 단어의 구조 파악 ④

④ 확인 단어 내의 상하 관계

'이슬비'는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를 뜻하는데, '이슬'과 '비'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 내에서의 의미 관계는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슬비'와 '비'는 단어들 간의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다.

①, ② 확인 단어 내의 반의 관계

'위아래'는 '위'와 '아래'가, '여닫다'는 '열다'와 '닫다'가 각각 반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단어이다.

③ 확인 단어 내의 유의 관계

'끓주리다'는 '끼니를 거르다'의 뜻을 가진 '끓다'와 '제대로 먹지 못하여 배를 끓다'의 뜻을 가진 '주리다'로 구성되어 있다.

⑤ 확인 단어 내의 상하 관계

'철'은 계절을 뜻하는 말이다. '봄'은 그 일부이므로 '봄철'은 상하 관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어는 그것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뉜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이다. 복합어는 구성 요소의 수가 복수인데 구성 요소가 무엇이나에 따라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된다. 단어를 둘로 쪼개었을 때 둘 다 어근이면 합성어이고, 둘 중 하나가 파생 접사이면 파생어이다. 가령 '물놀이'는 '물'과 '놀이'로 쪼개어지며, 이 둘은 모두 어근의 자격을 가지므로 합성어이다. 반면 '집집이'는 '집집'과 '-이'로 쪼개어지는데 '-이'가 파생 접사이기 때문에 파생어가 된다. 한편 어떤 단어가 단일어나, 합성어, 파생어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분할 때 조사나 어미는 고려하지 않는다. 조사나 어미가 몇 개 결합하든 단일어나 복합어의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① '집에서'는 조사 '에서'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합성어에 속하겠구나.
- ② '돌아가다'에는 어미 '-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일어에 속하겠구나.
- ③ '어른스럽다'는 어근이 '어른' 하나밖에 없으므로 단일어에 속하겠구나.
- ④ '손바느질'은 '손바늘'에 파생 접사 '-질'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파생어에 속하겠구나.
- ⑤ '들어앉히다'는 '들어앉-'에 파생 접사 '-히-'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파생어에 속하겠구나.

2)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공통>

• 여닫-이[여:다지] 「명사」
문틀에 고정되어 있는 경첩이나 돌쩌귀 따위를 축으로 하여 열고 닫고 하는 방식. 또는 그런 방식의 문이나 창을 통틀어 이르는 말.
†한옥 집은 대문이 대부분 여닫이로 되어 있다.

- ① '여닫이'의 어근은 소리 나는 대로 적었군.
- ② '여닫이'는 어근과 접미사를 분리하여 적었군.
- ③ '여닫이'는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하면서 품사가 바뀌었군.
- ④ '여닫이'의 어근은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졌군.
- ⑤ '여닫이'와 동일한 접사를 가진 복합어로 '젊은이'를 들 수 있겠군.

1) ⑤ **실마리** ‘들어앉-’에 파생 접사 ‘-히-’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들어앉히다’에서 어미 ‘-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들어앉-’과 ‘-히-’의 두 부분으로 쪼개어진다. 이때 ‘-히-’가 접미사이므로 ‘들어앉히다’는 파생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실마리** 조사 ‘에서’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집에서’의 ‘에서’는 조사로서 단일어나 복합어의 구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집에서’에서 ‘에서’를 제외한 ‘집’은 하나의 어근이므로 ‘집에서’는 합성어가 아니라 단일어이다.

② **실마리** 단일어에 속하겠구나

‘돌아가다’는 ‘돌아’와 ‘가다’의 두 부분으로 쪼갤 수 있으며 둘 다 어근의 성격을 가지므로 단일어가 아니라 합성어이다. 어미가 결합된 것은 단어의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실마리** 어근이 ‘어른’ 하나밖에 없으므로

‘어른스럽다’는 어근인 ‘어른’에 접미사 ‘-스럽-’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일어가 아니라 파생어이다.

④ **실마리** ‘손바늘’에 파생 접사 ‘-질’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손바느질’을 둘로 쪼개면 ‘손’과 ‘바느질’이 된다. 이 둘은 모두 어 근의 자격을 지니므로 ‘손바느질’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이다.

2) ⑤ **실마리** 동일한 접사를 가진 복합어

‘여달이’는 어근 ‘여달-’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반면 ‘젊은이’는 ‘젊은’과 ‘이’(의존 명사)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따라서 ‘여달이’와 ‘젊은이’는 동일한 접사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실마리** 어근은 소리 나는 대로

‘여달이’의 어근 ‘여달-’은 ‘열-’과 ‘달-’이 결합된 말이다. 그런데 ‘열-’의 ‘ㄹ’을 적지 않은 것은 ‘ㄹ’이 탈락한 발음을 그대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② **실마리** 어근과 접미사를 분리하여

‘여달이’는 어근인 ‘여달-’과 접미사인 ‘-이’를 분철하여 적은 것 이다.

③ **실마리** 품사가 바뀌었군

‘여달이’의 접미사 ‘-이’는 동사인 ‘여달-’을 명사로 바꾸어 준다.

④ **실마리**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여달이’의 어근 ‘여달-’은 ‘열-’과 ‘달-’이라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있다.